

歷代 學生帽에 관한 考察

姜 淳 弟*

A Study on the Traditional Students' Headgear

Soon Che, Kang

<目 次>	
I. 序 言	V. 高麗時代의 學生帽
II. 우리나라의 學校教育	VI. 朝鮮王朝時代의 學生帽
III. 三國時代의 學生帽	VII. 開化期에서 日帝時代까지의 學生帽
IV. 統一新羅時代의 學生帽	VIII. 要約 및 結論

Abstract

This study focuses upon the custom of the headgear as a part of historical research on our traditional student uniform. It covers from Sam Kuk period(三國鼎立時代) of which we have found written records of formal education through the period under Japanese colonialism:

The followings briefly summerizes the results of this study;

1) The educational civilization.

The formalism of national education had been similar to that of China. It's main contents consisted of Chinese literature and practice of confucianism. It's objectives had been the education of selected men of ability, most of whom were the offspring of the high class.

The education contents after the civilizational period had been gradually modernized for the purpose of westernization.

2) The changes of students' headgear.

- They had worn the Nakwon of Julpoong style (折風形羅冠) in the Sam Kuk period.
- They had worn Bok-Doo (幘頭) in the unified Silla dynasty, and Sadaimoolla-Kun (四帶文羅巾), Pyungjung-Kun (平頂巾) and Pyungjung-Dookun (平頂頭巾) in Koryo dynasty.
- They had worn Yoo-Kun (儒巾), Bok-Kun (幅巾) in Yi dynasty.
- The noticeable distinction under Japanese colonialism had been the custom uniformity from headgear to footwear.

Middle school educatee had worn round cap and professional school and college educatees had worn square hats.

* 聖心女子大學 衣類織物學科

I. 序 言

上代로부터 우리의 服飾은 貴賤·上下의 區別이 있었고 階級이나 身分에 따라서 衣服이 區分되고 있었다.

制度化된 形式教育下에서는 學生의 身分 또한 어느 사회에서든 독특한 한 部類의 階層을 이루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미진하지만 국가에 의한 학교교육이 三國鼎立 때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들이 착용하였던 의복 역시 上代로부터 一般 사람들의 것과는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것은 後代로 내려올수록 명확해지는데 朝鮮王朝에서는 學生服을 따로 명시하고 있음에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學生服 研究의 一環으로 우리나라 학교교육을 살펴보고 형식화된 교육제도 하에서 이들이 착용하였을 帽子를 중점적으로 다룸으로써 後日 歷代 學生服 정립에 一翼이 되고자 한다.

II. 우리나라의 學校教育

1. 三國鼎立時代의 教育

교육에 관한 형식이나 제도가 이루어지기 전에도 그 작용은 있어 왔으므로 원시사회에도 다름대로와 교육내용, 방법, 목적은 있었을 것이나, 이런 무의식적이며 비조직적인 원시교육이 아니라 형식적인 학교교육이 이미 삼국정립시대에 행해지고 있었다.

① 고구려의 교육기관

고구려는 小獸林王 2년(372)에 儒教를 교육이념으로 삼아 중국식 학교인 太學을 설립하였는데⁽¹⁾ 이것이 우리나라 교육사에서 기록으로 나타난 최초의 국립 교육기관이다. 이는 주로 귀족이나 특수계급의 子弟를 위한 관리양성기관으

로서, 漢學과 儒學의 敎習 및 고구려의 國家的 必要에 의해 武藝를 포함시킨 文武 兼備의 敎育을 그 내용으로 하였으리라 생각된다.⁽²⁾

官學인 太學 이외에는 우리나라 私學의 시초라고 생각되는 扁堂이 당시 民間에게 널리 보급되어 있었으며, 이는 後日 고려, 조선시대에 나타난 書堂의 기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② 백제의 교육기관

백제의 학교제도에 관한 歷史的 기록은 확인되지 못하고 있으나 일찍부터 중국과의 교섭이 빈번하여 직접 그 文化를 받아들이고 있었으며, 고구려가 太學을 설립하기 前인 西紀 285년에 博士 王仁이 日本에 論語와 千字文을 전한 일,⁽³⁾ 西紀 375년 博士 高興을 사켜 書記를 짓게 한 사실, 毛詩博士, 醫博士, 易博士, 五經博士의 制가 있어 항상 日本에 초빙되어 간 사실 등으로⁽⁴⁾ 볼 때에 백제에도 官學의 制가 있었을 것이며, 그 制度나 內容 또한 고구려에 못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③ 신라의 교육기관

삼국통일 이전의 신라에는 花郎道 敎育 이외에 학교교육에 관한 기사는 없다. 그러나 善德王 9년(640) 唐에 유학생을 보내어 그 나라 國學에 입학시켰다는 기록과 648년 王族 金春秋가 唐에 使節로 갔을 때 그 나라의 國學에 가서 釋奠과 論講을 보고, 돌아온 후에 신라에도 釋奠을 지내게 되었으며 651년에는 大舍 2人을 두었다고 하였으니⁽⁵⁾ 大舍란 또 國學의 官職이었음을 미루어보면 삼국통일 이전의 신라에도 國學과 비슷한 교육기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統一新羅時代의 教育

삼국을 통일한 후 신라는 31代 神文王 2년(682)에 國學을 세워 禮部에 속하게 하고 卿 1名을 두어 이를 관장케 하였는데 그 아래로 博士(國學의 敎授)와 助教를 약간 名, 大舍와 史를 2~4名 두었다.⁽⁶⁾

(1) 三國史記, 卷第十八, 高句麗 本紀 第六, 小獸林王 二年條.

(2) 南宮勇權, 敎育史, 學文社(1980), pp. 29~30.

(3) 日本西紀, 卷第九, 神功皇 十六年(285)條.

(4) 日本書紀, 卷第十七, 繼體天皇, 七年 六月條.

(5) 韓基彥, 敎育史, 法文社(1978), p. 28.

(6) 三國史記, 卷38, 雜誌 7, 職官上.

당시 학교의 목적은 유교이념에 입각한 관리 양성에 있었고 교육내용 역시 儒敎의 經典을 中心으로 하였으나 國學의 學制와 教材가 唐의 移植임은 말할 것도 없다.⁽⁷⁾

景德王 6년(747) 太學監으로 개칭하였다가 惠恭王 12년(776)에 다시 國學으로 고쳤다.

3. 高麗時代의 教育

官學으로는 학교의 규모를 갖춘 것으로서 中央에 國子監과 東西學堂 및 五部學堂, 地方에 鄉校가 있었으며, 私學으로는 12徒와 書堂이 있었다.

① 國子監

고려의 국립 최고학부로서 成宗 11년(992)에 설립되었다.⁽⁸⁾ 國子學, 太學, 四門學, 律學, 書學, 算學의 六學으로 이루어지고 양반계급의子弟를 4階級으로 나누어 교육하였는데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이 國子學이며 태학, 사문학, 율학, 서학, 산학의 順이다.⁽⁹⁾

國子監의 명칭은 麗末에 이르기까지 자주 변동하였다, 즉 설립 당시에는 國子監이던 것이 睿宗代에서 武人 집권시대를 거치는 동안 명칭의 혼돈이 있었으며, 24代 忠烈王 1년에는 國學이라 改稱하고, 24년에는 成均監으로, 34년에는 成均館으로 고쳤다. 다시 31代 恭愍王 5년에는 國子監으로, 同王 11년에 곧 다시 成均館으로 개칭되어 조선왕조로 연결된다.⁽¹⁰⁾

② 鄉 校

地方에 설립하여 지방관리의子弟나 庶民子弟를 교육시키던 중등 정도의 官學 교육기관이며, 동시에 儒敎의 祠堂이었다. 설립시기는 분명치 않으나 地方教育에 관심을 가진 成宗 때에 태동하여 仁宗代에 체제가 완비된 것으로 보인다.⁽¹¹⁾

③ 東西學堂

학당교육은 중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고려 고유의 학교제도인데 24代 元宗 2년에 처음으로

시작되었다.⁽¹²⁾

주로 國子監에 입학하지 못했던 서민을 위한 교육기관이며 恭讓王 때에 開京의 東·西·南·北·中央의 다섯 곳으로 확장되었다.

朝鮮王朝 四學의 基礎이기도 하다.

④ 12徒

中央의 官學인 國子監과 거의 비슷한 비중을 가지고 수준과 열의가 높았던 私設 高等教育기관이다.⁽¹³⁾

11代 文宗 7년에 海東公子 崔冲(984~1068)에 의하여 창설된 文獻公徒를 비롯한 12個의 私學을 말하며, 고려 中期 國子監이 부진하고, 鄉校와 學堂이 수립되기 전에 儒敎教育과 관리양성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⑤ 書 堂

史記에는 書堂에 관한 기록이 보이지 않으나 『高麗圖經』 卷 40 儒學條의 내용을 보면, 민간 마을에 초등 사설 교육기관으로 서당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미 고구려에 扁堂이 있었고 조선 왕조에 書堂의 기록이 뚜렷한 것으로 보아 이의 제도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 같다

4. 朝鮮時代의 教育

국립 고등교육기관으로 서울에 成均館이 있어 최고 학부의 구실을 하였고, 중등교육수준으로 서울에 四學과 地方에 鄉校가 있었으며, 私立 교육기관에는 書院과 書堂이 있었다. 이들은 지금의 初·中·高·大學과 같이 계통적으로 연결된 것이 아니고 대체로 각각 독립된 교육기관이며 교육목적·내용에 있어서는 대동소이하었는데 이러한 것은 조선 말엽 近代教育制度가 도입될 때까지 별다른 변화 없이 계속되었다.

① 成均館

고구려의 太學, 신라의 國學, 고려의 國子監 혹은 成均館으로 부르던 것을 이어받아 太祖 7년

(7) 韓基彥, 前揭書, pp. 29~30.

(8) 高麗史, 卷 74, 志第 28, 選舉 2, 學校

(9) 高麗史, 卷 74, 選舉 2, 學校

17代 仁宗 때에 式目都監이 작성한 國子監의 학칙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10) 南宮勇權, 前揭書, pp. 41~42.

(11) 前揭書, p. 43.

(12) 申千湜 外, 共著, “高麗社會와 教育”, 教育史, 載東文化社, 1973. p. 267.

(13) 南宮勇權, 前揭書, p. 44.

한양에 설립된 것이 그 시초로,⁽¹⁴⁾ 儒敎 이념에 압박한 학술의 연마와 국가 인재 양성의 총 본산 역할을 하였던 교육기관이다.

입학 자격은 生員, 進士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부족할 경우는 四學의 生徒, 나라에 功勞가 있는 집 嫡子孫으로 小學에 通한 자 등, 다소의 융통성이 있기는 하였다.

② 四 學

고려의 東西學堂, 五部學堂을 이어받아 조선 초에 세운 中央·東·西·南의 四學을 말한다.

成均館의 부속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으로 규모는 성균관에 비해 작고 교육내용, 방법은 별 차이 없었다고 하나⁽¹⁵⁾ 文廟를 두지 않는 점이 다르다.

③ 鄉 校

太祖 즉위시부터 크게 장려하여 壬辰 前까지는 계속 융성하였는데 壬辰兵禍에 황폐되었고 이후 書院이 융성해짐에 압력을 받게 되었다.

중엽 이후는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잃고 甲午更張 후까지 文廟祭享의 형식만 남게 되었다.

④ 書 院

中宗 38년 周世鵬이 고려의 學者 安珦을 享祠하기 위하여 설립한 白雲洞書院을 시초로 한 중등 정도의 私立 교육기관이었다.

燕山君代를 前後로 後世의 學校가 다만 科擧와 명예와 私科를 닦는 장소로 되어감에 뜻있는 선비들이 고요하고 한적한 곳에 따로 精舍를 세워 學問을 講하는 장소로 삼게 되자,⁽¹⁶⁾ 儒生들이 書院을 中心으로 모여들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각 地方의 鄉校를 능가하는 교육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

후일 파벌과 당쟁에 뛰어들게 됨에 출발시의 건전한 정신은 점차 쇠약해졌다.

⑤ 書 堂

국민 대중의 초등교육기관이다. 四學이나 鄉校에 입학하지 못한 8,9歲에서 15,6歲의 士族과 平民 子弟들의 유학도장으로 중요시되었다.

5. 大韓帝國時代의 學校敎育

병자수호조약을 시초로 세계 여러 나라와의 통상조약에 의한 문호개방이 시작되자 朝鮮 말기의 社會는 새로운 近代社會를 向한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였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조직적인 변화가 近代敎育의 도입이다. 이는 기독교 선교사에 의한 기독교 계통의 학교 설립과 더불어 시작되었는데 본격적인 近代學校의 성립은 甲午更張 이후로 본다.⁽¹⁷⁾

즉 1894년 甲午更張의 단행은 교육에 있어서 새로운 학제개편, 내용혁신을 가져와 본격적 교육혁신사업을 촉진하였으니, 이에 1895년 漢城 師範學校 등 일련의 官學이 설립되고 私學의 수효도 급격한 증가를 보이게 됨에 이른다.

따라서 소수의 양반이나 사대부의 子弟를 위했던 敎育의 門이 국민 다수를 위한 制度가 됨에 교육의 목적도 과거 관리양성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던 데에서 新文化를 섭취하려는 開化敎育에 두게 되었다.

6. 日帝時代의 敎育

1906년 日帝는 統監部 설치 이후 韓國 敎育행정의 최고 권력자가 되어 우리 교육을 좌우하였는데, 특히 교육에 의한 주권 회복을 목적으로 하던 그 즈음의 기본 교육이념은 우리 민족을 밑바닥부터 皇國臣民化하려는 일본의 정책에 의해 부당한 탄압을 받았다.

또한 한국인에게 인재 를 기르는 고등교육의 기회를 주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日帝는 그들의 학제를 따르는 專門學校만을 허용하였다. 대학의 必要性을 느낀 사회 유지들이 民立學校를 세우고자 하고, 專門學校가 대학으로 승격된다는 등 사회여론이 분분하자, 1924년 日帝는 京城帝國大學을 설립하여 한국 학생의 입학을 허용하였으나 入學의 門은 대단히 좁았다.

대부분의 專門學校는 解放 이후 大學으로 승격하였다.⁽¹⁸⁾

(14) 南宮勇權, 前揭書, p.61.

(15) 前揭書, p.65.

(16) 柳馨遠, 礪溪隨錄, 卷 2, 敎選之制上, 學校事目 參照.

(17) 韓基彥, 前揭書, p.380.

(18) 1921년 보성전문학교는 1946년 고려대학교로, 1923년 연희전문은 1946년 연희대학교로, 1925년 이화여전은 1947년 이화여자대학교로 개칭됨.

Ⅲ. 三國時代의 學生帽

학교 건립에 대한 歷史的 記錄은 고구려에 限하고 있으나 前述한 대로 이와 때를 같이 하는 신라나 백제에도 같은 내용의 학교가 있었다고 봄이 옳을 것이다.

당시의 복식은 三國이 공통으로 다분히 常武的인 要素를 지니고 있었으나⁽¹⁹⁾ 貴人階級에서는 中國의 영향을 받아 점차 寬裕한 형태의 것을 착용함으로써 천인계급과의 區分을 보이고 있으며 官人들의 복식도 어느 정도 계급적인 分化가 되어 있었다.

즉 固有冠帽로 인정되고 있는 幘, 折風, 烏羽冠은 기본 形狀이 弁狀을 이루고 있으며, 그 외의 羅冠, 皮冠은 冠帽의 재료에 따른 名稱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古記錄에 나타난 바를 토대로 하여 着用樣相을 보면 階級性이 明瞭하다.⁽²⁰⁾

그런데 최초의 학교였던 太學은 주로 귀족이나 특수계층의 子弟를 위한 관리 양성이 主目的이었음을 감안하면 그들의 복식 또한 귀인계급의 것에 準할 것이며, 더불어 官品 없는 자의 복식을 따랐으리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周書』 異域 高麗條에 「蘇骨은 丈夫 즉 一般 男子의 冠인데 紫羅를 가지고 이를 만들었고, 官品이 있는 자는 거기에 2개의 烏羽를 장식하여 官品이 없는 者와 區別하였다」고 하였고, 『北史』 列傳 高句麗條에도 「折風은 특수관모는 아닌데 士人은 여기에 2個의 烏羽를 꽂았으며, 貴者는 紫羅를 흔히 사용하여 그 冠을 蘇骨이라 불렀다」 하였으며, 또한 「折風은 즉 蘇骨」로서 弁狀冠帽임이 이미 밝혀진 바 있으니⁽²¹⁾ 이러한 것을 給습하여 보면 아마도 太學의 학생들은 弁狀의 冠帽 表面에 絹布(紫羅일 것으로 추정된다)를 바른 折風形 羅冠을 착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할 듯하다.

Ⅳ. 統一新羅時代의 學生帽

『三國史記』 新羅本紀에는 眞德女王 3년(649) 正月에 「始服中朝衣冠」이라 하여 이때부터 中國의 冠服制度를 수용하였음을 적고 있는데, 삼국 통일 이후 唐文化의 급격한 流入은 모든 文物制度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이른다.

당시의 服飾은 그 자세함이 전해진 바 없어 확인하기 어려우나 연대가 조금 내려오는 興德王의 服飾禁制條에서는 唐의 영향을 받아 변형 혹은 새로이 수용된 복식 일반을 엿볼 수 있다.⁽²³⁾

그 중에서 冠帽는 骨品에서 平人에 이르기까지 幘頭 一色으로서, 三國時代에 착용하던 幘, 折風, 烏羽冠 등 우리 고유의 관모는 이미 사라진지 오래고 그 代身에 唐의 頭飾인 幘頭의 사용이 상당히 一般化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당시의 學生帽 역시 여기에 準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것은 더우기 官學인 國學의 設立이 神文王 2년(682)의 일로서 唐文化의 流入이 한창인 때이며, 학교제도 또한 唐의 그것과 유사한 것인 만큼, 國學生徒의 冠帽 역시 唐制였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Ⅴ. 高麗時代의 學生帽

건국 초에는 新羅의 制度를 그대로 본받았으나 점차 중국 대륙과의 복잡한 對外的인 관계로 인하여 그후 變化의 樣相은 크게 前期 宋服飾 영향기와 後期 元·明服飾 영향기로 나눌 수 있다. 이에 따라서 學生服도 前·後期로 區分된다.

또한 高麗에는 官學, 鄉學, 私學 등의 교육기관이 前代에 비하여 다양해지고 교육내용 또한 유학의 근본이념을 바탕으로 보다 발전·조직화되어 있음은 高麗末 安珣이나 李穡 등의 教育實踐家들에게서 익히 짐작할 수 있다.

① 前期 宋服飾 영향기

이때의 學生服은 進士服과 같은 제도의 것으로

(19) 李如星, 朝鮮服飾考, 白楊堂, 1947, pp.111~114.

(20) 前掲書, pp.99~100.

(21) 前掲書, p.97.

(22) 前掲書, p.193.

(23) 三國史記, 卷第 33, 雜誌 第二 色服 新羅



[도 3] 西三洞 벽화 인물

따라서 文羅巾이란 기본형태가 唐巾이나 高麗鏡背文人物의 巾樣, 西三洞 벽화인물의 巾樣에 대동소이할 것이나 이들은 모두 兩條의 帶를 뒤통수에 垂下한 형태이니, 四帶에 대한 것은 보다 확실한 자료의 출현을 기다려야 하겠으나 대체로 위의 기본형태의 것에 네 가닥의 帶를 垂下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할 듯하다.

② 後期 元·明服飾 영향기

高宗 18년(1231)부터 거의 30년 동안 6차에 걸친 몽고의 침입 이후 치욕적인 和親이 성립되자 上流社會의 일부에서는 다시 몽고풍을 쫓는 풍조가 일기 시작하였다.

忠烈王 4년 2월에는 정식으로 국내에 승을 내려 몽고의 衣服과 開剃髮을 시행토록 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宰相으로부터 下僚에 이르기까지 開剃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고 오직 禁內學館(翰林院, 春秋館, 其他 諸館)의 학생들만이 이를 즐겨하지 않았으므로 左承旨 朴恒이 執事官을 불러 說諭하는 바람에 학생들도 모두 開剃하게 되었다고 한다.⁽²⁸⁾ 따라서 元 服屬下에서는 몽고식 의복도 강요당했다고 볼 수 있다.

이때에 학생복으로 따로 지정된 것은 없는 듯 하나 다만 의복이나 머리 모양은 元의 制樣을 따랐다고 볼 수 있으므로 帽子는 開剃에 알맞는 平頂巾 형태의 것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한 것은 同時代 教育思想家인 安珣(1246~



[도 4] 安珣(朝鮮 弘文社 編, 『朝鮮古今名賢傳』)

1306)의 影幀에서 추측할 수 있다(도 4). 이 형태는 또한 후일 下庶人 頭飾(一名 감투)에 그 자취를 남기고 있다.

32代 禡王 13년 6월에는 明制에 따른 관복개혁이 있었는데⁽²⁹⁾ 成均生員, 京外學生, 權務 및 無職士人은 高頂帽 또는 平頂頭巾이며 諸司胥吏 또한 平頂頭巾으로 同一하다. 이를 『明史』 輿服志에서 보면 洪武 3년에 「儒士, 生員, 監生巾服 四方平定巾」이라 하였고, 24년에는 「士庶巾服無異吏胥」라 하여 吏胥 역시 四方平定巾을 제정하고 있으나 고려 말의 平頂頭巾은 곧 明의 四方平定巾에서 유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때의 平頂頭巾의 形態나 시행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VI. 朝鮮王朝時代의 學生帽

前期는 明服飾의 영향 下에서 冠服制度가 확립되었다. 中後期에 들어와서 壬辰倭亂과 丙子胡亂을 치르는 동안에 중국에서는 王朝의 교체(淸)가 있었으나, 官服은 그대로 明의 制度를 고수하면서 민족복식의 형성과 아울러 그 정착을 보게 이른다.

따라서 국초에는 고려 말 우왕 때에 개정한 제

(28) 高麗史, 志卷 第二十六 輿服

(29) 前掲書.

도를 따랐을 것이며, 몇 차례에 걸친 제도의 정비는睿宗代의『經國大典』에서 집약되고 이후의 변화는明禮制를 根本으로 한『經國大典』이후의 教旨 및 각종의 條例를 보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學生服(儒生服)에 대한 것도 그 制度에 있어서는 별반 변화 없이 국말까지 이어 짐을 볼 수 있다.

儒生服에 대한 첫 기록은『太宗實錄』11年 6月條에「成均館 및 五部學生은 朝廷의 制度에 의하여 비로소 靑衿을 착용하였다」고 한 것인데 冠巾에 대한 사항은 없다. 世宗 20年 2月條『實錄』에는 進士들이 儒巾을 썼다고 하였고,『經國大典』禮典 儀章條에는 諸 學生徒의 冠服이 團領에 緇布巾(在學時)으로 제정되었으니 靑衿 혹은 團領이나, 儒巾 혹은 緇布巾이란『明史』輿服志 중에서 洪武 24年 制度인「生員 襪衫…… 阜條軟巾垂帶」를 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經國大典』의 制度가 잘 시행되지는 않았음인지 李德懋의『靑莊館全書』에는「우리나라는 太宗朝에 이르러 儒生의 冠服이 明의 國子監生의 例를 본따다. 註, 中間 太宗의 時令이 行하여지지 않았다」⁽³⁰⁾고 하였고, 李晳光의『芝峰類說』에는「宣祖 33年 禮曹가 上啓하기를, 上께서 成均館 文廟에 참배하는 날 經筵에서 館中の 儒生들이 巾과 笠을 뒤섞어 착용하였으므로 中國인들이 이 점을 기이하게 여겨 웃고 있으니 미안할 따름이다. 別試講經을 위시하여 儒生들은 모두 頭巾을 착용하여 衣裳을 아름답게 꾸미자고 하였다」고 적고 있다.⁽³¹⁾ 그리하여『燃藜室記述』別集 卷13에는「英祖 22年 8月, 上이 安東 鄉校가 옛부터 소장해 오고 있는 襪衫, 軟巾, 條帶가 있다는 말을 듣고 이를 가져 오게 한 후, 그 제도를 취하여 成均館에 하사하고 이후 여러 進士가 입게 되니 영구히 정식이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海東釋史』에 의하면「朝鮮生徒는 모두 軟羅巾을 쓰고 靑襪衫에 絲帶를 띠고……」라 하였으므로,⁽³²⁾ 朝鮮末까지 館中에서 儒生들이 착용한 모자는 幅巾과 儒巾이 定式이었음을 알 수 있다.

蕙園의 風俗圖 중에는 鄉校나 書堂 아이들의 바지 저고리 차림도 눈에 띄기는 하나 衣冠을 重視하던 士大夫階級에서는 반드시 衣冠整齊를 禮로 하였으므로 幅巾, 儒巾의 착용은 필수적이었을 것이다.

① 幅巾

黑色의 繪(비단) 6尺을 가지고 키 모양으로 만들어 머리에 쓰고 드림을 뒤로 느린 다음 머리 위는 둥글고 뾰족하게 만들면서 양 옆(귀 부근)의 끈으로 귀를 걸쳐서 뒤통수에 잡아맨다.

원래는 中國 古代로부터 冠을 대신하는 간편한 쓰개였는데 後漢代부터 유행되고 晉·唐에 이르러 차차 隱士, 道人이 사용하였으며, 宋代에는 司馬光이 燕居時에 쓰개로 착용하고, 朱熹가 그의 家禮에 推舉한 다음부터 儒者들 사이에 유행을 보았다.⁽³³⁾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초부터 儒生들의 것으로 制定되기는 하였으나 그 모습이 특이하였으므로 儒者들 사이에는 일반화하지 못하였고 주로 미혼 남자가 통상에 복에 착용하였다(도 5).



[도 5] 李晳 幅巾(韓國名人肖像大鑑)

② 儒巾

儒生들이 사용한 데에서 불리워진 명칭으로 보인다. 검은 베로 만들었고 民字巾이라고도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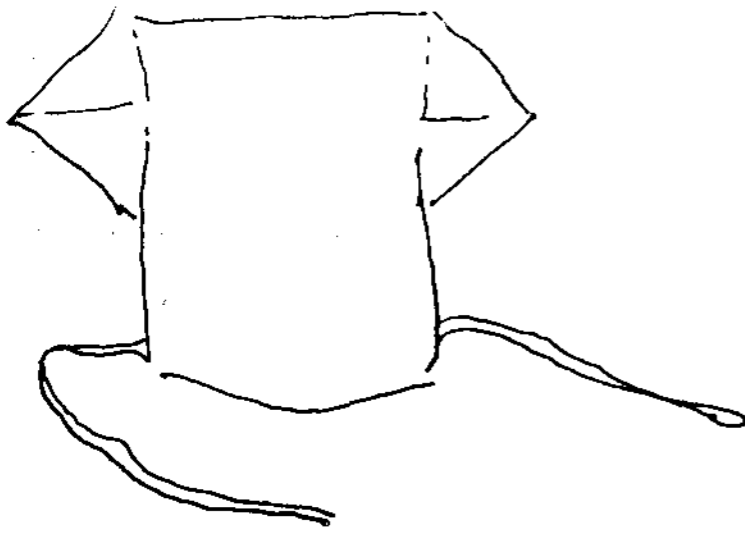
(30) 李德懋, 靑莊館全書 卷五十七, 葢葉記.

(31) 李晳光, 芝峰類說, 卷三, 君道部法禁.

(32) 韓致淵, 海東釋史, 卷第二十, 禮忘三, 儀物章服條

(33) 柳喜卿, 한국복식사연구, 이대출판부(1976), p. 320.

다.⁽³⁴⁾ 중국의 것은 竹結하여 검은 베(縹布)로 싸기도 하고 혹은 종이로 배접하거나 漆을 하기도 하여 그體



[도 6] 儒 巾

樣이 端正하고 그다지 뽀족하지 않다.⁽³⁵⁾ 우리나라의 儒巾은 형태는 中國의 것과 대동소이할 것이나 竹結된 것이 아니고 대개 黑紵로 접어서 만들었다(圖 6).

VII. 開化期에서 日帝時代까지의 學生帽

上下尊卑의 等威를 가리는데 필수적이었던 衣冠이 簡素化施策으로 인하여 近代化의 第一步를 내딛게 되고, 신분계급 타파의 制度化, 근대 교육기관의 설립 등 朝鮮 末의 社會는 엄청난 변화에 진통을 겪고 있었다.

「官報 開國 五百四年 11月 15日 號外」에 공표된 內容 중에서 의복제도는 外國制를 채용하여도 무방함, 망건제 폐지, 단발령 등의 內容은 세찬 반발에 부딪치기는 하였으나 점차 衣生活의 變革을 가져 왔으며, 특히 근대식 교육제도 하의 학생들에게서는 보다 빠른 변화의 모습을 주시할 수 있다. 곧 이어 학생들은 획일적인 日帝의 교육제도 하에서 制服과 制帽를 착용하였다.

1) 開化期

1895년에 내려진 단발령은 그 전체적인 시행이 문제될 것이나 이는 곧 조선왕조 5百年을 이어 내려오는 고유 관모의 종말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다. 즉 通常冠帽로 사용되어 왔던 것은 大院君의 衣冠 簡素化施策에서 이미 양태가 작은 小笠으로 변하였으나,⁽³⁶⁾ 단발령이 공표된 이후에도 옛것을 고집하는 保守의 일부 계층에서는 1930년 즈음까지도 사용되었는데, 당시 新教育을 접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서양 문물의 수용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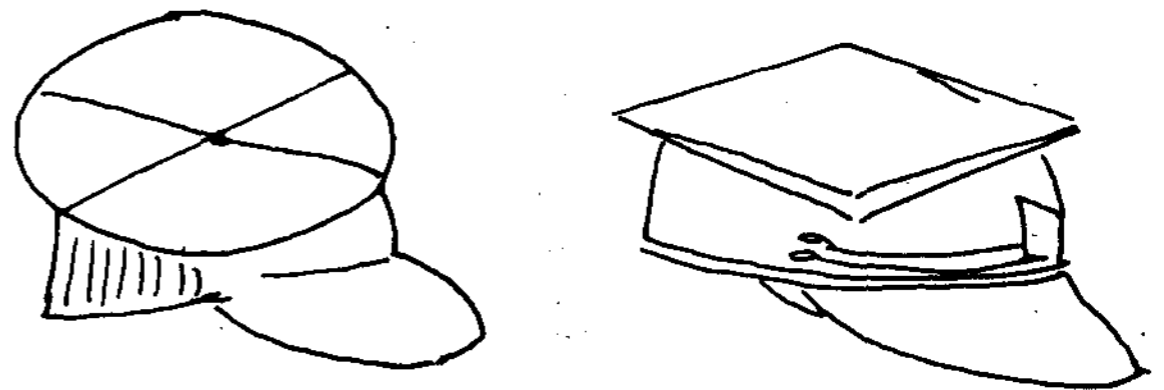
도 보다 앞서고 있었으니 보다 빠른 변화의 모습은 근대 교육제도 하의 학생들에게서도 볼 수가 있다.

1896년 5월 「독립신문」 제12호 논설에서 徐載弼 박사는 衣生活의 개혁을 강조하고, 「양복입기와 단발하는 것은 백성의 자유의사에 맡김을 원칙으로 하되 학생이나 군인, 警官 등 집단행동의 要員들에게는 이를 장려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同年 6月の 『독립신문』 제26호, 29호 기사와 논설에는 학교 학생의 제복 착용과 단발을 금지하고자 하는 當時의 학부대신 申箕善의 上疏 內容과 함께 이에 대한 날카로운 반박이 실려 있다. 다시 같은 달 31호 『독립신문』 雜報欄에는 培材學堂 學徒들이 머리를 깎고 제복(洋服) 입은 모습을 찬양하는 內容의 글이 실려 있으니 이미 근대화하고 있는 학생들의 복장과 시대의 변모를 감지할 수 있다.

2) 日帝時代

대부분의 중학교와 전문학교의 교복은 양복이었는데 이때에는 제복은 물론 制帽의 착용이 획일적이다.

즉 이때의 학생모는 전문학교 이상에서는 사각모, 중등학교에서는 둥근 모자였다(도 7).



[도 7] 學生帽
專門學校(右), 中學校(左)

이 제도는 近來에 까지 변함없이 지켜지고 있어 그 贊·反에 대한 시비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VIII. 要約 및 結論

本 研究는 學生服 研究의 一環으로 시작한 歷代 學生帽에 대한 史的 考察이다.

考察의 범위는 記錄上 形式教育이 존재하는 三

(34) 柳喜卿, 前掲書, p.377.

(35) 李肯翊, 燃藜室記述 別集, 卷13, 冠服條

(36) 韓國史, 最近世篇, 震檀學會(1961), p.211.

國鼎立時代부터 日帝時代까지이다.

연대가 올라갈수록 다만 추측에 불과했던 점이 있기는 하였으나 制度化된 형식교육하의 학생은 어느 사회에서든 특수한 한 계층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 그 추측을 보완하여 줄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삼국시대부터 형식교육의 형태가 존재하고 있었고, 또한 신분·귀천의 구분이 복식에 표현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고찰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교육내용의 변천

삼국시대부터 중국의 교육제도를 모방한 교육기관이 설립되었고, 그중에서도 官立 고등교육기관은 중국의 제도와 대동소이하다.

조선 말까지는 중국의 漢學과 儒學의 敎習을 그 내용으로 한 고급 인재 양성이 주목적이었으며, 학생은 주로 귀족, 양반, 士族의 子弟에 한했다.

開化期 이후 학교제도가 개편되고 교육내용, 범위가 西歐文化를 이해하려는 목적에서의 개화교육으로 바뀔에 따라 衣服 또한 西歐服飾과의 二重構造 속에서 學生服은 일찍 洋服으로 바뀌었고, 곧 이어 日帝의 획일적인 교육하에서 制服·制帽의 등장이 뚜렷해진다.

② 學生帽의 變遷

◦ 삼국정립시대에는 折風形 羅冠을 착용하였을 것이다.

◦ 統一新羅時代에는 幘頭를 착용하였다.

◦ 高麗 前期에는 四帶文羅巾, 後期 元 服屬期

에는 開剃에 알맞는 감투형의 것을 착용하였고, 우왕 13년 明制에 따른 衣冠 개혁시에는 平頂頭巾이 제정되었다.

◦ 조선왕조에서는 儒巾·幅巾이 制度的으로 말엽까지 남았으며, 大院君의 衣冠 簡素化施策으로 말기에는 얼마간 小笠을 착용하였을 것이나 곧 학생들은 머리를 깎고 양복을 착용하였다.

일제시대에는 전문학교 이상은 사각모, 중학생은 둥근 모자를 制服과 함께 착용하였다.

참 고 문 헌

- 金東旭, 韓國服飾史研究, 亞細亞文化社(1974).
 南宮勇權, 教育史, 學文社(1980).
 柳喜卿, 한국복식사연구, 이대출판부(1976).
 李如星, 朝鮮服飾考, 白楊堂(1947).
 河炫綱, 韓國의 歷史, 新丘文化社(1979).
 李肯翊, 燃藜翊記述別集.
 李晔光, 芝峰類說.
 韓致淵, 海東釋史.
 「經國大典」
 「高麗史」
 「高麗圖經」
 「朝鮮王朝實錄」
 「唐書」
 「明史」
 「宋史」
 韓國教育學會編, 韓國 儒學思想과 敎育, 敎育史研究會,
 (1976).
 西三洞壁畫古墳, 安東대학박물관 총서 1(1981).